LS증권

The Strategy

LS Edge |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6. 15

어찌됐건 액션은 시장 폭 확대 베팅

전략/퀀트 | **정다운** | dw.jung@ls-sec.co.kr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현실화

변동성 높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는 20% 이상의 하락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가 주가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일(6/15) 오전,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합의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또한 추가적인 주가 반등에 무게를 싣는 이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따르면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 ① 핵 프로그램 폐기와 관련한 진전이 없었고, ② 이란은 동결자산(약 $240억) 해제 및 원유 및 석화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유예를 주장하나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③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징수 권한을 일부 얻었다고 주장하며, ④ 동맹국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 제동 등의 내용이다. 이는 이란 입장에서 실익이 큰 합의 내용들이다. 즉, 다시 60일 동안의 휴전 기간 동안, 실무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기 긍정적.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면, 유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일부 있다. 그러나 당사는 이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유가는 빠르게, 그리고 크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합의 내용들에서 핵 협상과 동결 자산 해제, 호르무즈 해협 등에 대한 이슈는 아직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차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전체 인플레이션에 상당 폭 기여한 것은 맞지만, 에너지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당사는 6월 FOMC에서, 독립성을 의식하고 있는 케빈 워시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내비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한다.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시장 폭 확대 베팅

당사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주목하고 있는 위험 지표 중 하나는 시장의 폭이다. 극단적으로 쏠리면서 시장의 폭이 좁아졌고,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시장 폭 축소와 함께 지수 상승이 나타났다. 또한 이번 시장 상승 사이클에서 주가가 다소 쉬어가는 구간 이전에 항상 극단적으로 좁아진 시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8일(월)을 저점으로 시장의 폭이 일부 넓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좁은 시장 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당사의 해석은 3 가지다. ① 향후 극단적으로 좁아진 시장의 폭 확대 가능성, ② 향후의 이벤트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클 수 있다는 것, ③ 향후 3개월동안의 신고가 갱신 여부가 시장의 상승 동력을 체크할 것(6/12 종가 유지 시 향후 3M 수익률)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한동안 쉬었던 주도주인 조선, 방산, 그리고 철저히 소외된 고 퀄리티 가치주(Ex. 코스닥 소외주 등)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좀더 긴 호흡에서, 하반기에는 자동차도 선호 업종으로 제시하는데, 높은 원달러 환율, 2Q26 실적 저점 통과, AI 투자보다는 활용 관점에서의 피지컬AI 기대 때문이다. 2Q26 실적시즌을 앞두고 실적과 주가의 연동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AI 투자 사이클에서의 병목, 반도체 2 Top에 대해서는 알파가 줄어드는 구간을 전망하고 있다. 주가가 부러지기에는 실적 기대가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도체의 P 보다는 Q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AI 투자 사이클에서의 수익화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AI와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부정적 공약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여전히 반도체의 업사이드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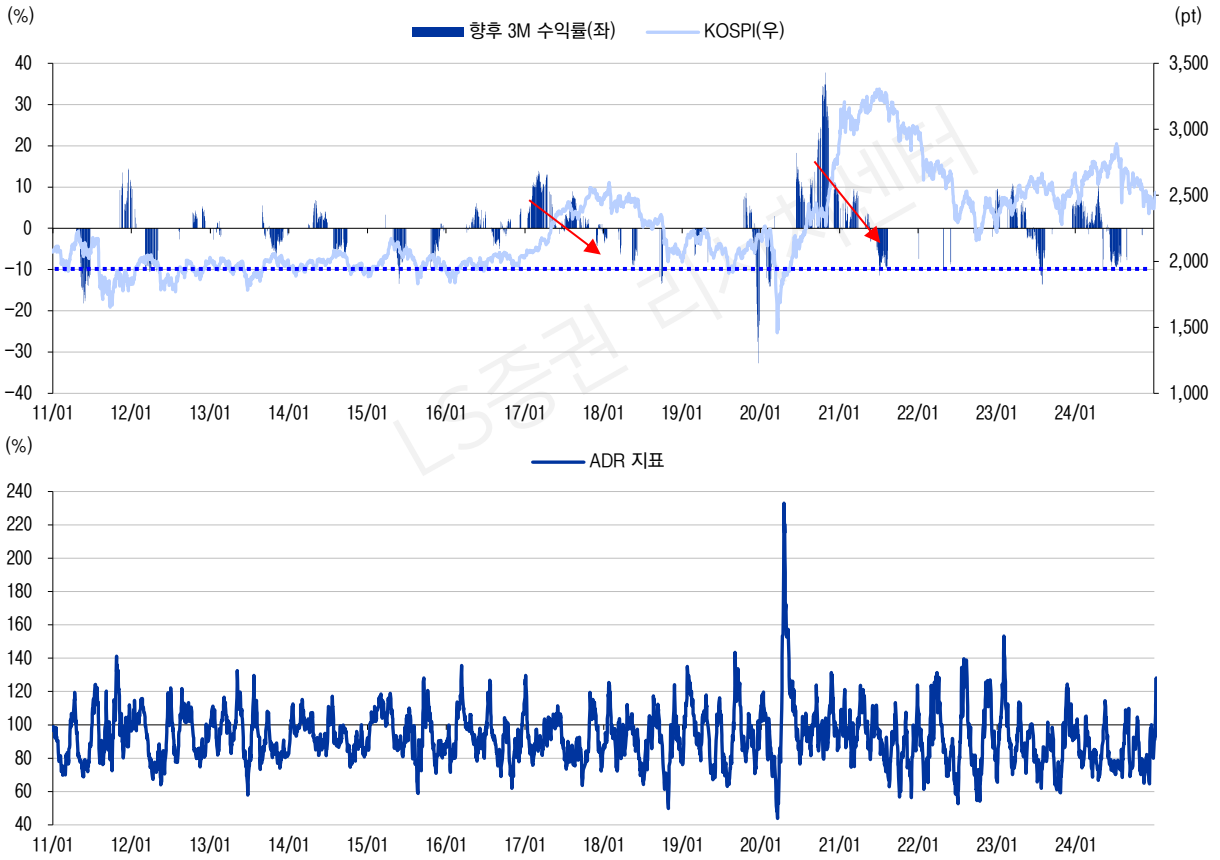
그림1 2024 년까지의 ADR 과 KOSPI: ADR 100 이하 & KOSPI 최근 3 개월 수익률 (+)일 때, 이후 3 개월 수익률

① 주가 상승 or 하락의 시그널은 아니나, 이후 변동성 발생

→ 이후의 이벤트에 따라 주가의 변동이 달라짐

② 지수 상승 추세에서도, 고점 갱신 후 추세적인 하락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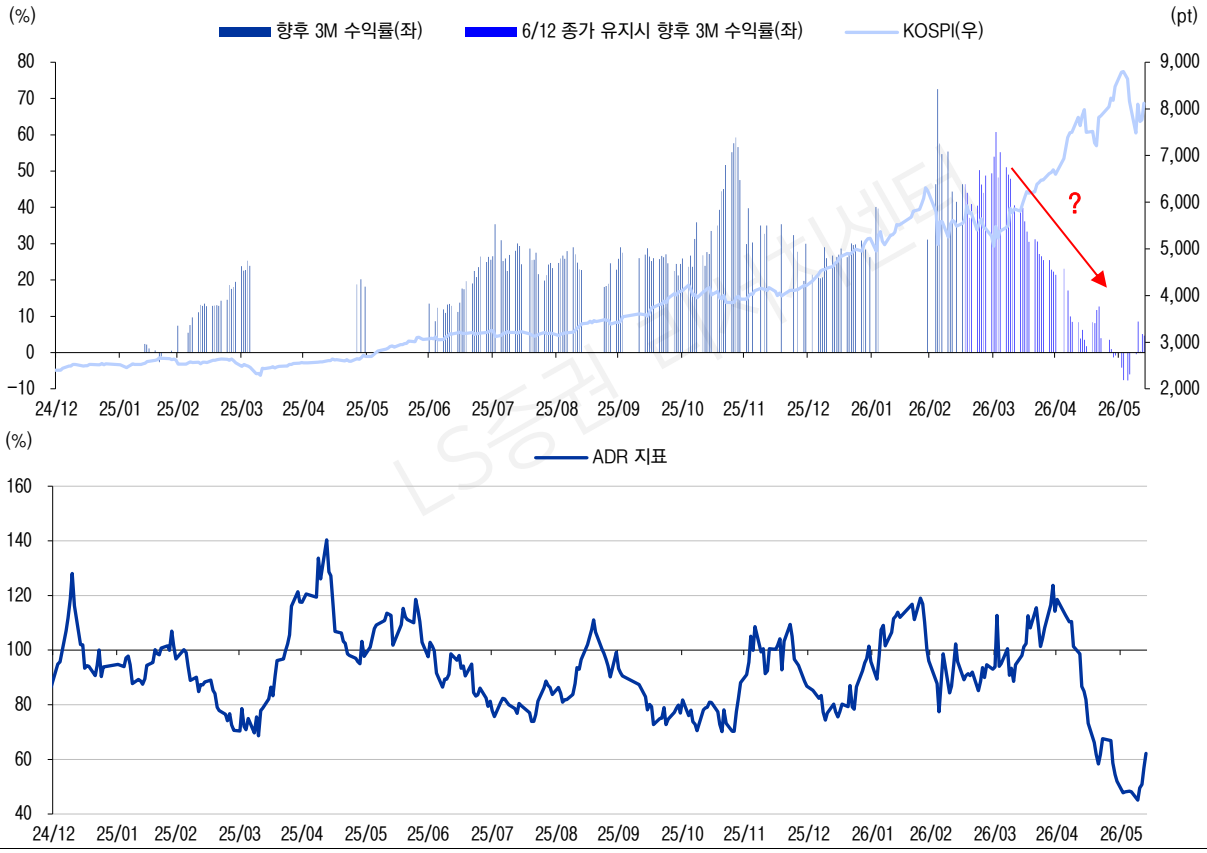
→ 모멘텀 소강(폭이 좁아짐) 이후 신규 모멘텀(폭이 넓어짐)의 반복 속에서 지수 상승 탄력 둔화



자료: FnGuide,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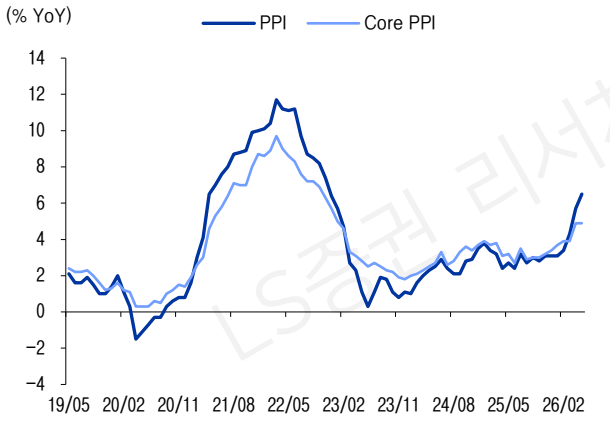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024년 이후의 ADR과 KOSPI: ADR 100 이하 & KOSPI 최근 3개월 수익률 (+)일 때, 이후 3개월 수익률
→ 본격적인 시장의 폭이 좁아지며 지수 상승 흐름이 나타난 시기
현 시점의 해석 ① 향후 극단적으로 좁아진 시장의 폭이 확대, ② 향후의 이벤트에 주가 변동성 발생 가능,
③ 향후 3개월동안의 신고가 갱신 여부가 시장의 상승 동력을 체크할 것(6/12 종가 유지 시 향후 3M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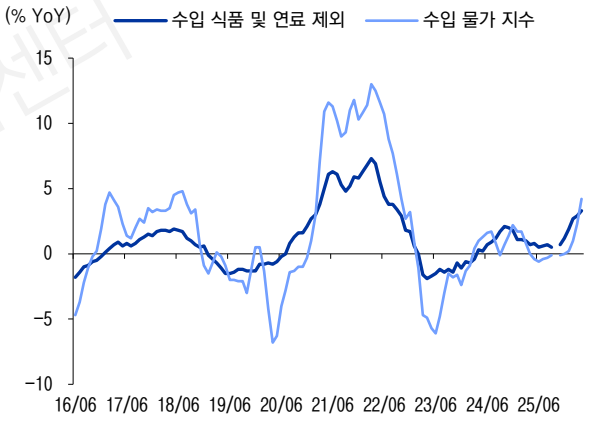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미국 PPI와 코어 PPI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미국 수입물가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다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